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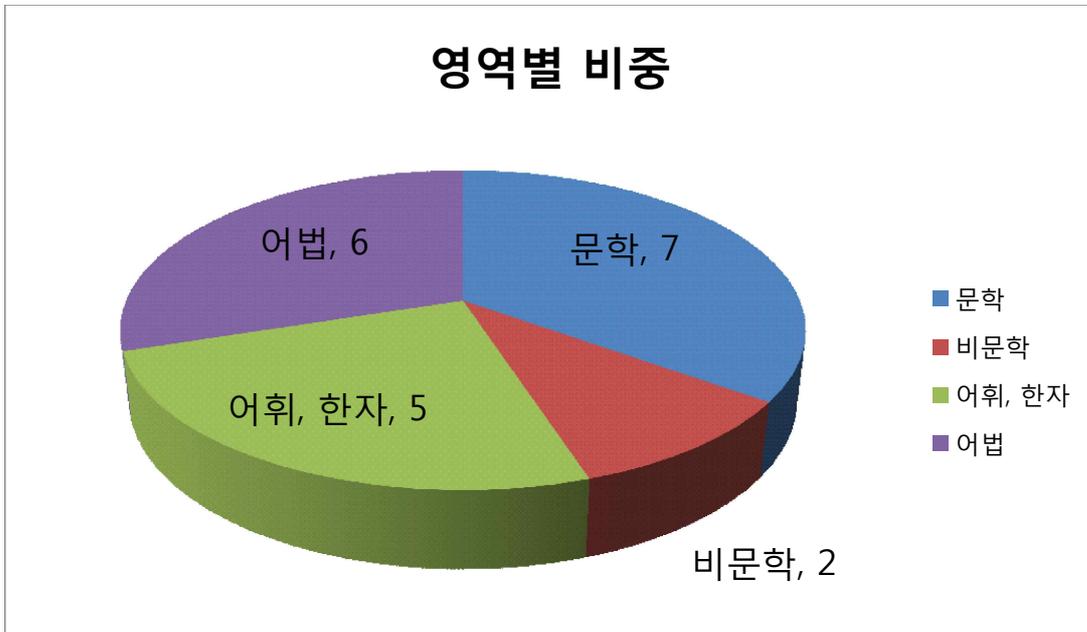
# 국어 기출해설

해설 - 송은영 교수(해커스)

## 1. 전체 총평

총체적 난도는 어렵지 않았으며 유형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기존 국가직의 경향과 다르게 문학의 비중이 커지고, 비문학 문항 수가 적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한자를 포함한 어휘 문제가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작년 국가직 시험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시도한 데 반해서 이번 시험은 기존 시험을 통해 접했던 유형이 많이 보였고, 기존에 중요하다고 정리됐던 핵심적인 내용이 문제로 많이 출제되어서 체감하는 난도는 더 쉬웠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학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익숙한 작품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부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형과 영역별 비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기본에 충실할 때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보통의 진리가 역시 통했던 시험이었습니다.

## 2. 영역별 출제 비중



## 3. 영역별 총평

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총평
어법	6 문항	5,8,15,16,17,19	이론 문법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고, 어문 규정에서 2문항, 옛말의 문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의미론에서 단어의 같은 쓰임을 묻는 문제와 형태론에서 용언의 활용 형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음운론에서 음운의 성질을

			<p>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어문 규정에서는 평소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이 나왔으며, 띄어쓰기 문제 역시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옛말의 기본자를 묻는 문제도 기본적인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p>
어휘, 한자	5	3,6,7, 14, 18	<p>한자는 기존의 흐름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출제되었습니다. 사자성어 문제, 한자를 바탕으로 한 접두사를 묻는 문제, 2음절의 한자를 묻는 문제, 한자의 독음을 묻는 문제와 고유어의 바른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자에 대한 대비가 안되었던 수험생들에게는 힘들었지만,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한 수험생들에게는 많이 어렵지 않고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과 유형이었습니다.</p>
문학	7	1, 2, 4, 9, 11,12,13	<p>문학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전 작품은 '구지가'(고대 시가), '유충렬전'(고전 소설)이 나왔고, 현대 작품은 '저문 강에 삼을 씻고'(시), '삼포 가는 길'(소설), '바다와 나비'(시), '중국인 거리'(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소설)이 나왔습니다. 현대 작품의 비중이 컸지만 매우 생소한 작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 분석, 추론, 감상, 고전 작품에서의 해석'등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전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훨씬 접근하기 쉬웠을 거지만, 작품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진 수험생들은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p>
비문학	2	10, 20	<p>비문학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비중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한다면 꾸준한 연습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10번의 '말과 생각의 관계'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 매우 흔한 제재로 많이 접해본 수험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20번에 나온 '내용 전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으나 익숙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p>

#### 4. 문항별 해설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구지가」-

- ① 조건 -요구 -위협 -환기
- ② 위협 -조건 -환기 -요구
- ③ 환기 -요구 -조건 -위협
- ④ 요구 -위협 -환기 -조건

정답 ③

이 시가는 '거북이 부르고(환기) '머리로 상징되는 우두머리를 달라 기원(요구)한 뒤에 그렇지 않으면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조건) 구워 먹겠다(위협)고 하므로 '환기 -요구 -조건 -위협'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 해설]

구지가

- ▶출전 <삼국유사>
- ▶갈래 4언 4구의 한역 시가, 집단 무가, 노동요, 주술요
- ▶성격 주술적, 집단적
- ▶주제 수로왕 강림 기원, 생명 탄생의 염원
- ▶특징 직설적 표현과 명령 어법 사용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④

화자는 도시 노동자로 삶의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슬픔도 떠다 버린다', '셋강 바닥 썩은 물',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구절에는 힘든 삶에 대한 울분과 힘겨움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이므로 '객관적인 전달'을 언급한 4번은 옳지 않다.

[작품 해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율격 : 내재율
- ▶성격 : 성찰적(省察的), 회고적, 비판적
- ▶표현 : 상징법
- ▶어조 : 체념적인 어조, 독백 형식의 절제되고 단아한 어조, 한 중년 노동자의 담담한 목소리.
- ▶제재 : 강물
- ▶주제 : 강물에 삼을 씻으며 느끼는 인생의 의미(중년 노동자의 비애, 도시빈민 노동자의 비애), 민중의 고단한 삶과 애환
- ▶특징 :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삶과 대비시키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시킴

문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조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조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민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囊中之錐(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지, 송곳 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진다는 의미로 뛰어난 인재를 겸손한 태도로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의미.

[오답 풀이]

① 吳越同舟(성씨 오, 념을 월, 한가지 동, 배 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③ 馬耳東風(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리는 태도

④ 近墨者黑(가까울 근, 먹 묵, 놈 자, 검을 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뜻.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였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중에서 -

- ①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②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④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답 ②

백화를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백화가 쇠약해진 탓에 무게가 가벼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지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번은 적절하지 않다.

[작품 해설]

▶갈래 : 단편 소설, 사실주의 소설, 여로형 소설

▶성격 : 사실주의

▶배경 : 시간-70년대 공간-공사장에서 고향인 삼포로 가는 여정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①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뜨내기 인생의 애환.

② 산업화로 인한 민중들의 궁핍한 삶, 따뜻한 인정과 연대(連帶) 의식.

▶등장인물

-정씨(氏) : 출옥(出獄)한 후 고향인 삼포(森浦)를 찾아가고 있는 인물. 막노동자. 걸말부에서 떠돌이 신세가 됨. 생각이 깊고 인정이 있음.

-노영달 : 착암기 기술자. 공사판을 찾아 돌아다니는 뜨내기 막노동자. 한때 술집 작부와 동거 생활. 행동과 말은 거칠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인물.

-백화 : 군인 부대가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술집에서 도망친 작부. 18세에 가출하여 군부대 주변의 술집을 4년여간 전전하며 군인들에게 몸을 팔았던 인물.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③

<보기>와 ③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의미이다.

①은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②④은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의 의미를 갖는다.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중에서 -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①

시망스럽다(형용사):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오답 풀이]

- ② 활발하다: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산만하다: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잔망스럽다: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강행군 ② 강기침 ③ 강타자 ④ 강염기

정답 ②

'강기침'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고유어 접두사이다.

'강행군', '강타자', '강염기'는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강-(強)] 한자로 된 접두사이다.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 들르다)

정답 ②

'불은 국수'에서 '불은'의 기본형은 '불다'이다. 'ㄷ' 불규칙 용언이 나타나는 경우로, 모음 어미 앞에서 '불은- 불어- 불었다' 등이 된다.

[오답 풀이]

- ① '갈다'는 'ㄹ' 규칙 활용에 의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르'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가니, 가는, 갑니다, 가시오, 가오' 등으로 활용한다.
- ③ '(~에게) 이르다'는 'ㄹ' 불규칙 활용에 의해, 모음 어미 앞에서 'ㄹ'이 'ㄹㄹ'로 바뀌어 '일러, 일렀고, 일렀다' 등으로 활용된다.
- ④ '들르다'는 'ㄹ' 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경우로, '들러, 들렀다'로 활용한다.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러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 한 흑이 달리고 그 흑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 뺨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중에서 -

- ① 어머니의 주위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시공간적 배경은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 '중국인 거리'라는 제목과 '중국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지만 그것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역할을 작품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작품 해설]

- ▶갈래 :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전후 소설
- ▶구성 : 시간의 역전적 구성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 6·25 직후의 항구 도시 인천의 중국인 거리
  
- ▶제재 : 한 소녀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과정
- ▶주제 : 정신적 성장의 고통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달라 붙은 쌍둥이한테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은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마지막에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①)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④)라고 나타나고 있어 ④번 진술은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②,③번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모든 내용의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 말이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며,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 ②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 ③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 ④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정답 ②

'나비'는 순수해서 '바다'를 자신이 생각하는 '청무우밭'으로 착각하고 있어 시련을 겪고 있다. '청무우밭'이라고 생각해서 '바다'로 가는 '나비'의 모습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냉혹한 현실 때문에 좌절을 겪는 존재이지 방관적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작품 해설]

바다와 나비 (김기림)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주지적, 상징적, 회화적

▶제재 : 바다와 나비

▶주제 :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마는 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

▶특징 : ①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강렬한 이미지의 바다와 연약한 이미지의 나비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중에서 -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②

본문에서 '㉠금광 브로커'가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리고 작품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황금광 시대(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알 수 있다.

[작품 해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 ▶갈래 : 중편 소설, 심리 소설, 모더니즘 소설
- ▶성격 : 관찰적, 심리적, 묘사적
- ▶배경 : ① 시간 - 1930년대의 어느 날 ② 공간 - 서울의 거리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1930년대 서울의 모습
- ▶주제 : 1930년대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사

문 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여 ㉢백옥루 잔치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여 왈,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여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여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뽀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池)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 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 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력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지 오래라.

-「유충렬전」중에서 -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④

㉣의 말을 한 사람에게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즉 '충렬(선관)이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될 일을 암시하는 말이다. '남악산 신령'은 단지 '선관'에게 부인댁으

로 가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갈래 : 국문소설, 영웅 소설, 군담소설
- ▶공간 배경 : 중국 명나라 /시대 배경 : 난세(亂世) (병자호란의 수치심과 그 극복 정신이 배경)
- ▶주제 :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한 유충렬의 영웅적 행적
- ▶성격 : 영웅의 일대기, 비현실적, 우연적
- ▶의의 :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가장 충실하게 그린 대표적 영웅소설)
- ▶특징 : ①영웅의 일생 구조
- ②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 설정
- ③(귀족적 영웅 소설)의 대표작
- ④실세한 양반들의 권력회복의 꿈 반영

문 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가지 방식이 있다.

- ㉠ 說明 猫鯊 徐事 論證
- ㉡ 說明 猫鯊 徐事 論症
- ㉢ 設明 描寫 敘事 論症
- ㉣ 說明 描寫 敘事 論證

정답 ㉣

- ㉠ 說明(말씀 설, 밝을 명): 일정한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어 밝힘, 또는 그 말
- ㉡ 描寫(그릴 묘, 베낄 사):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냄
- ㉢ 敘事(펼 서, 일 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 論證(논할 논, 증거 증): 사물의 이치를 증거를 들어 증명 또는 설명하는 것

[오답 풀이]

- 設明(베풀 설, 밝을 명) : 해당 한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 猫鯊(고양이 묘, 문절망독 사): <동물> [같은 말] 꿩이상어
- 徐事(천천히 할 서, 일 사): 태봉(泰封) 광평성(廣評省)의 둘째 관직
- 論症(논할 논, 증세 증): 병의 증세를 논술함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났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어서 뺏겨처럼 만들었다.

정답 ③

'잠그다'는 '-다' 대신에 모음 어미가 오면 '—탈락'현상이 나타나서 '잠가, 잠그면, 잠갔다' 등이 된다.

[오답 풀이]

- ① 낳다: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났다 :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났다'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로 '나았다'가 되어야 한다.
- ② '넉넉하다'는 어근 부분 '넉넉'에서 끝에 나타난 음소가 안울림소리 'ㄱ'이므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 든다. 따라서 '넉넉치 못한'으로 고쳐야 한다.
- ④ '잇다'는 모음 어미 '-어서'와 만나면 '이어서'로 활용된다.(ㅅ불규칙 활용)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ㅞ ② ㅠ ③ ㅢ ④ ㅝ

정답④

훈민정음 28자모(字母) 체계: 초성 17자 + 중성 11자

- 초성 17자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ㅇ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脣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후음(喉音)	ㅇ	ㅎ	ㅇ

- 중성 11자

상형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하늘의 둥근 모양	ㅇ	ㄱ, ㅋ, ㆁ, ㆁ	ㅊ, ㅌ, ㅢ, ㆁ
땅의 평편한 모양	ㅡ		
사람이 서 있는 모양	ㅣ		

순경음 'ㅇ'은 운용의 원리 중 연서법(連書)에 의해서 나타난 글자이다.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②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③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④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정답④

④ '한밤중'은 한 단어로 굳어진 명사로 붙여 쓴다.

[오답풀이]

- ①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의미로 붙여 쓴다.  
 ② '만'은 시간 개념일 때 띄어쓴다.  
 ③ '-ㄹ뿐더러'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①

探險(찾을 탐, 험할 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矛盾(창 모, 방패 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貨幣(재물 화, 화폐 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주화, 지폐, 은행권 따위가 있다.

[오답 풀이]

② 詐欺(속일 사, 속일 기): 나쁜 꾀로 남을 속임.

惹起(이끌 야, 일어날 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灼熱(불사를 작, 더울 열): 「1」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2」몹시 흥분하거나 하여 이글거리듯 들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荊棘(가시나무 형, 가시 극):

「1」나무의 온갖 가시.

「2」'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破綻(깨뜨릴 파, 터질 탄): 「1」찢어져 터짐.

「2」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잘못됨

洞察(밝을 통, 살필 찰): 환히 내다봄

④ 箴言(경계 잠, 말씀 언): 「1」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2」『기독교』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 솔로몬 왕의 경계와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惡寒(미워할 오, 찰 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

奢侈(사치할 사, 사치할 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ㄷ, ㅌ, ㅍ'는 후설 모음이다.

④ 'ㄱ, ㅋ, ㆁ, ㆑'는 원순 모음이다.

정답 ①

'ㄴ, ㄹ, ㅇ'은 비음이고, 'ㄷ'이 유음이다.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나) - (다)

정답 ②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라고 했다.

(나)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저것'과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

(라)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앞에서 언급한 이것과 저것의 밀접한 관련성을 근거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삶-죽음', '된다-안된다' 등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에서 '그래서'라는 말을 활용해서 앞서 말했던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